

시론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尹의 예견된 미래

라 지출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尹의 과거 모습에서 미래가 예견됐다. 외곽으로 떠돌던 인물이 검찰의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이어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본모습이 잘 드러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에 따르면尹은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당일 저녁 강남 한 음식점 '윤석열 사단'이 모인 축하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어느 심리학자는尹의 행동유형을 분석했다. 의식된 행동보다는 오랫동안 무의식 중에 기억된 학습에 의해 행동하는 고집스런 유형으로 봤다.

이러한 유형은 강단이 있으며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용하면서도 과묵하게 행동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지배력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고집불통과 같은 소용 부재로 내비칠 수 있다.

인간의 무의식은 기본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않는다.

尹역시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둘째, 또 다른 고위직과 행정관에 따르면

당시 내부 여론은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었다. 임명 전 상당히 많은 논란과 고민도 했다.

셋째, 검사 시절尹은 2012년 제18대 대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尹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장래보다 개인의 안위와 정치적 입지만을 먼저 생각했다.

목숨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며 견임도 하지 말았어야 할 위인이, 대통령이 되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라가 너무도 혼란스럽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겹쳐 더욱더 힘든 시기다.

이러한 매일수락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중심을 잡고 합심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사태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다시 국민은 계엄령을 마주했다.

기고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

지금의 의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한다.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익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는 여러 대책을 모색해 왔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의료 인력 확보에 집중하며 지방 의료 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

한편 제3회 제38회 제38회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국민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과대학이 설립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의대 졸업 이후에 지역에 남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의료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자원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유발한다.

독자투고



김수연

노인 타깃, 고령층 올리는 투자리딩방 사기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은 노인을 타깃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이다.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은 50세 전후로 나타나는데, 은퇴자금으로 100세 시대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가상화폐로 돈을 번다고 하니 나도 해봐야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기에 휘둘리곤 한다.

사기 투자리딩방 운영자들은 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 리딩을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나 자산을 악용한다.

투자리딩방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증된 투자기관을 이용하고 너무 과도

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60대 이후 금융사기를 당하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복구가 난망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피해자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노인을 타깃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이에 시의적절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범죄 유형에 발맞춰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체포된尹, 나라를 더 혼란으로 내몬 책임도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당당하다. 불법 수사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으로 지지자들을 위로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보강해왔다.

광주 지역경제 근간 자동차 산업 맞춤형 지원 중요

광주시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지속된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전했다. 지난해 생산 규모는 56만 6천800대로, 전년(58만6천100대) 보다 3.3% 감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제 법치의 시간이다. 한 달이 넘는 43일 만에 피의자가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를 낱알이 밝혀내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싸운 국민이 만들어낸 승리다. 윤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잇따른 소환과 체포영장에 불응했다.

개의 완성차 회사인 기아, 글로벌모터스와 600여 개의 부품기업이 밀집해 있고, 제조업 생산의 44%, 고용의 2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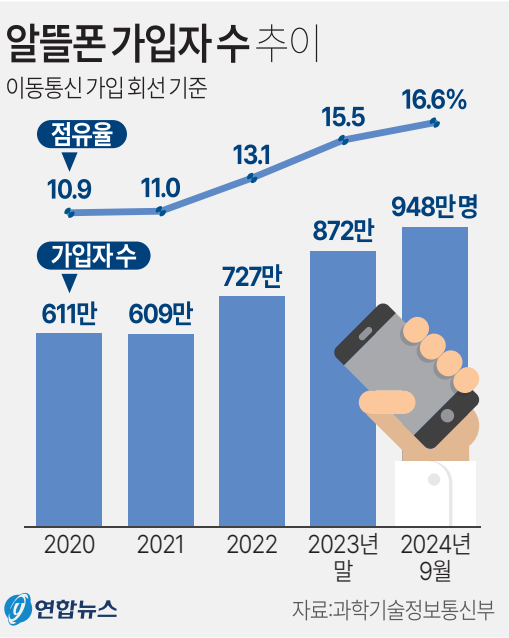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를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등 여건은 밝지 않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심화와 함께

그래픽 뉴스

20GB 쓰고 월 1만원대...상반기 5G 알뜰폰 '반값요금제' 나온다

정부가 올해 통신 정책의 주요 목표를 알뜰폰 경쟁력 제고로 정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를 발표

데이터 도매대가만 통신사의 통신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는 알뜰폰 회사가 통신사에 내는 사용자 개편이다. 낮은 도매대가가 알뜰폰 이용요금에 반영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알뜰폰 5G 요금제 중 월 20GB 사용에 1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전망이다.



SK텔레콤 기준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 LG유플러스 기준 2만4천TB 이상 선구매 시 20% 할인이 추가된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